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식지 2010 가을 · 겨울호

박물관문화

Museum Culture no.18 Autumn / Winter 2010

2010 · 2011 상설테마전
상설전시관 조선의 삶을 만나다
담인복식미술관 조선시대의 나들이

전시리뷰 2010 · 2011 가을전시회
테마기획 고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역사문화지도 만들기

2010 가을 특별기획전
기획전시관 松竹 푸른 소리, 맑은 향기
근 · 현대미술전시관 숲의 향기, 숲의 소리

박물관 소식 2010 가을전시회 개막 外
소장품 갤러리 조문명 초상

2010 박물관 가을전시회 축하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선욱

여로부터 우리 민족은 가을 수확을 끝내면 선조들을 찾아 풍요로운 음식을 함께 나누며 1년 동안의 자연의 축복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계절에 본교 박물관의 가을 전시회를 통해 선조들의 삶과 맛과 여유로움을 만나는 것이, 다른 어느 계절의 만남보다 더 행복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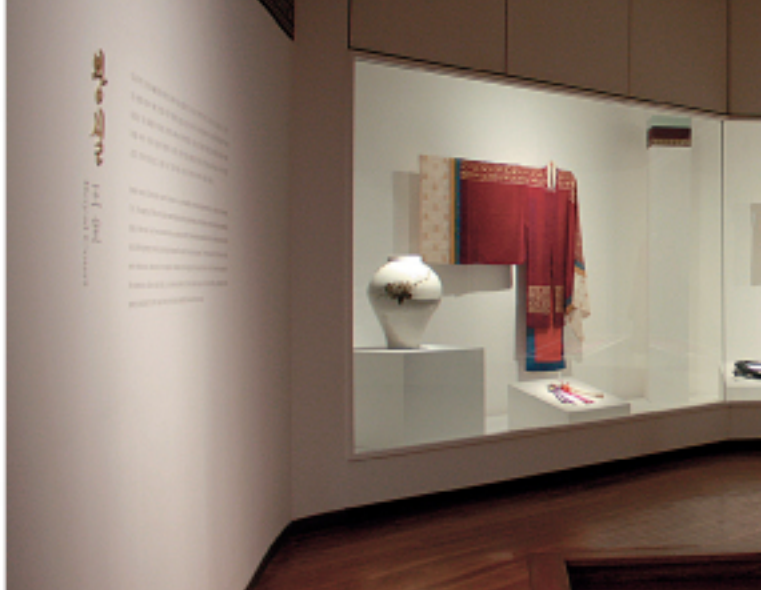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세 차례나 최우수 대학박물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훌륭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문화교육 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본교 박물관은 그동안 유물을 수집·보관하는 곳이 박물관이라는 일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양한 기획 전시를 통하여 전문적인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 공간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세대 간에 서로 대화하며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식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양한 아트샵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중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는 박물관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들이 서로의 의견과 감동을 자유롭게 나누며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교육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에 속한 박물관으로서의 사명을 실천하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그동안 여성의 위치와 사회적 공헌에 관련된 전시를 여러 차례 기획하여,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박물관 문화계에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는 여성대학의 박물관으로서의 특별한 교육적 기능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0 가을 전시회를 통해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 또 한번 발전의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가을 전시회 개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11. 1 ~ 2011. 7. 30 상설테마전 조선의 삶을 만나다·조선시대의 나들이



《조선의 삶을 만나다》전은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 삶의 모습을 계층 간의 생활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기획된 전시로, 크게 왕실·관료·선비·중인·상민으로 구분하여 미술문화를 통해 조선시대의 삶을 드러내고자 한 전시였다.

이번 전시는 미술품의 장르별 구분이나, 시대별 구분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기획된 전시라는 점에서, 이전의 여러 박물관의 상설전시실과는 크게 구분되는 역동적인 전시를 제시하고 있다. 장르적 구분으로 전시되는 작품들은 흔히 그 작품이 사용되었던 기능과, 이를 의의화하고 감상하였던 사람들이 누락되고, 하나의 비싼 예술작품이라는 아우라를 지닌 채 조명을 받으며 감상자에게 다가온다. 이러한 장르별 전시가 각 유물의 조형미에 감상자가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작품이 사람들과 함께 했던 내러이션이 제거됨으로써 박제화 되기 쉽다는 위험 또한 존재함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번 전시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공간 속에 사람이 숨 쉬면서 유물에 생명을 불어 넣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였으며 주역의 오행론이 삶의 철학으로 뿌리내려있던 시대였다. 율령론은 음과 양의 이분법적인 논리이지만 서로 상보하는 관계로서의 독자성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주역의 체계에서 각 계층은 자신들만의 미술문화를 만들어 즐기며 그 속에서 삶의 철학을 실천해갔다. 이러한 조선시대로 되돌아가 보면 실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미술은, 미술사교과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수화'라기 보다는 왕실의 미술문화일 것이다. 그 중요성만큼 주목받지 못하였던 왕실의 미술문화가 이번 상설전시관의 첫 테마

송죽화松竹畵의 세계

장진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소나무와 대나무는 군자의 지조와 절개, 고결한 인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중국의 송나라 이후 문인화의 주요 소재로 각광을 받았다. 소나무는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는 나무로 군자의 도덕적 고결함, 불굴의 정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굳센 의지를 상징하게 되었다. 서얼출신의 화가였던 이안상李爾祥(1710-1760)이 그린 〈철송도雪松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는 소나무 그림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눈 덮인 겨울 산 속에서 홀독한 추위를 견디며 생명을 이어가는 두 그루 소나무의 비장한 모습을 통해 이안상은 좌절의 시간을 극복해 가는 군자의 불굴의 정신세계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나무는 주로 폭포나 개울을 바라보고 있는 고사齋士를 위한 배경으로도 그려졌다. 중국의 경우 명대에 이러한 송하인물도는 크게 유행하였으며 조선 중기부터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경윤李慶胤(1545-1611)이 대표적인 화가이다. 송하인물도는 정화백자에도 그려져 많은 사랑을 받았다.



허유 許維 (1809-1892)
노송도 老松圖
1872년, 비단에 수묵담채
102×59cm

한편 북송의 대표적인 문인인 소식蘇軾(1036-1101)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대나무를 그리는 것이 문인화가의 임무라고 주장한 '홍증성죽중수'論 이후 대나무는 군자의 변함없는 의지와 김인한 정신성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묵죽화墨竹畵는 문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즉 문인화의 핵심은 화가의 정신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늘 두르고 곧게 자라는 대나무는 문인의 고결한 정신을 표현하는데 좋은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소식의 친구인 문동文同(1018-1079)을 위시하여 중국에서는 많은 문인들이 대나무를 즐겨 그렸다. 조선시대에는 대나무 그림이 크게 유행하여 사군자 중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대나무를 그리는 방법은 서예적 기법을 활용한 것이 많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대나무 그림은 '그림과 글씨는 기원이 같다'는 '서화동원書畵同源'의 요체를 가장 잘 구현한 소재로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경李穡(1554-1626), 유덕장柳德章(1675-1756), 감세환姜世晃(1713-1791), 김정희金正喜(1786-1856), 신위申緯(1769-1847), 민영익閔泳翼(1860-1914), 윤용구尹用求(1853-1939), 김규진金圭鎭(1868-1933) 등이 대표적인 묵죽화가들이다.



상설전시관 내부 전경

로서 관람자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그 상징성만큼이나 의미 있는 첫 걸음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선비' 부분에서는, 그 동안 선비들의 미의식에 대한 전시가 대부분 사랑방 공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전시에서는 사랑방 공간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공간으로 제상臺床과 제기祭器를 설치 전시함으로써 선비들의 삶을 지배하는 철학의 뿌리를 한 눈에 드러내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웠고 또한 효과적이었다.

한편 탐인복식미술관에서는 〈조선시대의 나들이〉가 전시되었다. 조선후기는 양반계층을 중심으로 유행과 기행紀行 풍조가 널리 퍼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특히 조선후기에 집중하여 풍류를 즐겼던 선조들의 삶을 나들이 차림새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남성들이 외출시 반드시 갖췄던 의관, 여성들의 내외용 쓰개인 장옷을 통하여 유교이념이 지배하였던 당시 복식규범의 일반은 엿볼 수 있었다. 요즘도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들은 여성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곤 하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선비들도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데에 많은 장신구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시선을 끌었다. 선비들의 옷을 장식하는 옥토와 같이 해오리의 모습을 통해 청렴한 선비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갓끈 및 머리 장식용 풍잠·관자·통곳 등에 옥·호박·대모·수정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화려하면서도 격조 있는 장신구를 디자인해 선비들 스스로 몸을 치장하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이러한 이번 상설전시 공간이, 감상자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역동적 공간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학예연구실 박계리

2010. 11. 1 ~ 2011. 1. 29

기획전시관, 근·현대미술전시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2010년 가을을 맞아 특별기획전의 문을 열었다. 기획전시관에서는 소나무와 대나무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이들을 대했던 선조들의 여유와 삶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松竹 푸른 소리, 맑은 향기>전이 열리고, 근·현대미술전시관에서는 <숲의 향기, 숲의 소리>를 주제로 하여 나무와 숲의 모티브를 통해 자연의 초월적 아름다움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기획전시관 <松竹 푸른 소리, 맑은 향기>

예로부터 조선의 문인들은 자연 친화적인 사유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적 소재를 통해 마음속에 품은 이상을 표현하였는데, 소나무와 대나무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때화와 함께 추운 겨울에도 절개를 잃지 않는 세 친구라 하여 세한삼우歲寒三友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난, 대화, 들과 더불어 맑은 지조를 지녔다하여 오정五淸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추운 겨울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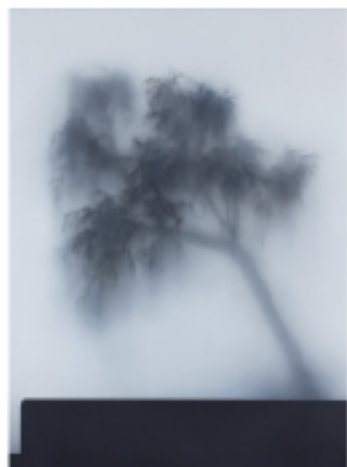
백지청화 송죽인물문 항아리
白磁靑畫松竹人物文 甁
조선 18세기, H.47cm, 보물 제944호

늘 푸르름을 간직하는 소나무는 의지의 표상으로 여겨졌고, 사군자의 하나인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곧게 자란다하여 사대부의 굳은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였다. 이처럼 송죽松竹이 지닌 고귀하고 청결한 기상은 문인들의 정신적 이상향으로서 인식되었으며, 때로는 인물과 함께 어우러져 탈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지닌 장수와 길상의 의미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그 형상과 문양이 그림 뿐 아니라 도자기를 비롯한 다양한 공예품에서도 자주 등장하였다. 송죽松竹은 목재로서도 크게 선호되며 일상생활용품의 재료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본 전시는 이와 같이 우리 문화 속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사랑받아 온 소나무와 대나무의 다양한 의미를 박물관 소장 유물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그 조형미 뿐 아니라 이들을 대하는 선조들의 마음가짐까지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근·현대미술전시관 <숲의 향기, 숲의 소리>

숲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소멸되는 거대한 생태계로, 예술에 있어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어 왔다. 생명을 길러내는 숲의 에너지는 예술가의 창작 에너지가 되고, 예술가의 눈에 투영된 자연의 모습은 작가의 조형적 감성을 통해 하나의 심상으로 재탄생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과정을 지친 숲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관람자는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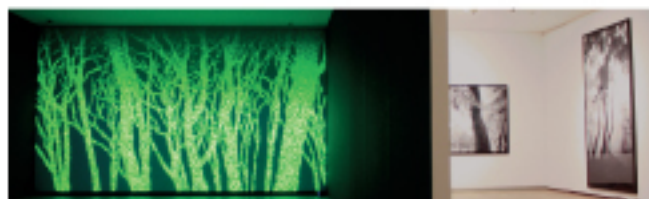


이기봉 Sheer Times
2008, 혼합재료, 182.5x42.5cm
국제갤러리, 작가소장

이 숭고함에 대한 사유와 내적 성찰의 시간을 맞게 된다.

본 전시는 자연과 통화되는 예술적 감흥을 느껴보고자, 나무와 숲의 모티브를 통해 자연의 초월적 아름다움을 재해석한 통시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한국적 자연관과 정신성이 투사된 숲속 풍경, 존재의 본질과 환상에 대한 관념적 사유를 표상하는 인개 속의 나무 한 그루, 생성과 소멸 그리고 존재와 부재에 관한 작가의 철학적 성찰을 내포하는 나무 형상 등 자연의 다양한 의미를 해석해 낸 예술작품들이 전시된다. 작품 앞에서 관람자는 푸르고 청량한 나무 향기를 맡으며 일상에 이는 바람소리 가득한 숲길을 거닐 듯 자연과의 시적 교감을 통해 사색과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학예연구실 권민경



고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역사문화지도 만들기



박물관은 지난 2월 서울시의 「대학이 제안하는 건강한 학교만들기」사업에 선정되어 고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의 곳곳을 누비며 답사하느라 바쁜 한 해를 보냈다. 「대학이 제안하는 건강한 학교만들기」에 선정된 박물관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역사문화지도 만들기〉는 고등학생들이

서울의 역사문화가 담겨있는 유적과 박물관을 답사한 후 역사·문화·사건·인물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지난 새로운 여행루트를 기획하여 창의적이고 신선한 '서울역사문화지도'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4월~5월 초에는 '한성 마스터플랜 보기'를 주제로 봉납토성과 서울대박물관, 한강, 서울성곽 등을 답사하며,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서울의 역사와 마스터플랜을 살펴보고 사라진 흔적들을 찾았다. 5월 중순~6월에는 '조선의 역사현장 탐사'를 주제로 고지도 속에서 역사현장을 찾고, 조선 정치·행정의 중심지 광화문 옥조대(六曹거리), 경제 중심지 피마갑(발굴현장), 왕실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국립고궁박물관과 UNESCO 세계문화유산 선정릉 등을 답사하였다. 7~8월 여름방학에는 '조선시대 선비의 풍류찾기'와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의 이야기를 찾아서'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선비의 풍류찾기'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풍류를 즐겼던 서울의 명소들을 찾아가보고 그들의 풍류를 직접 체험해 보았다.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의 이야기를 찾아서'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근대近代의 역사와 인물·사건을 찾아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정동일대·북촌 등을 답사하며 스트리텔링해 보았다. 9~10월에는 '흥길, 물길을 통해 본 조선의 역사·문화'라는 주제로, 고지도 속의 길을 답사하고 경제적, 문화적 교역과 교류를 직접 살펴보고 있다. 박물관은 7개월 동안 다섯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서울역사문화 탐방지도와 체험활동기 작품들을 '서울역사문화 탐방기 작품전시회'를 열어 전시하였고, 전시 마지막날 시상식을 가저 그동안 수고와 열정을 한껏 보여준 고등학생들을 격려했다.

〈고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역사문화지도 만들기〉는 서울 안의 국·공립문화재 관리기관과 박물관·대학 등 역사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박물관·유적지·문화유적발굴현장 등을 생생한 역사의 장으로 돌아볼 수 있었고, 참여학생들의 꿈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진짜 공부'의 시간이 되었다. 더불어 서울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인성을 키우고, 세계 고도古都들과 견주는 서울의 시민으로써 한국인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 해 동안 학생들과 호흡하며 쌓은 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겁게 소통하는 박물관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학예연구실 이정선

〈고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역사문화지도 만들기〉 참가후기



최수연

저하여고 3학년, 1차 '한성 마스터플랜 보기' 참가

네 번의 수업이 다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업에서 느낀 점을 쓰고 싶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내가 완성하는 서울 성곽' 주제로 조선시대의 성곽을 찾아다녔다. 조선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 많은 유물이 남아있어 생생한 답사를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광희문(光熙門)을 갔다. 광희문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봐왔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광희문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런데 직접 들어가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설명을 듣고 조선시대 때 물에 새겨진 문자를 만져도 보고 사진도 찍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광희문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 너무 부족해 서울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근처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가서 얼마 전에 발굴·복원된 이간수문(二間水門)을 볼 수 있었다. 발굴된 부분과 복원된 부분이 차이가 나 신기했고 몇 백 년 전의 유물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답사의 태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간수문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큰 돌이 갑자기 많은 물이 몰아칠 때 많은 양의 물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갈라지게 하기 위한 돌이라는 설명을 듣고 조상의 지혜를 알 수 있었다. (중략) 북악산과 인왕산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왜 이곳이 2,000년 동안 수도였는지 알 수 있었다.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지만 북악산과 인왕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이 풍수지리적으로 좋다는 느낌은 분명히 받았다. 명당자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네 번째 수업, 지도를 만드는 것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지도를 만들 재료가 주어지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세 번의 모임에서 느꼈던 것을 나누면서 지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울을 수도로 택한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기 때문인데 그것의 증거가 백제 때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 풍수지리를 모토로 지도를 제작하였다. 우리 조는 답사를 하면서 많은 곳에 한국다움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한국다움이 있는 지도를 만들기를 원했다. 밥 먹을 때도 어떻게 지도를 만들까 상의를 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다. 그 결과 만족한 만한 지도를 만들었다. 지도를 다 제작한 후 발표를 하니 무엇인가를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정든 동생들, 선생님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섭섭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 꿈인 문화외교가 좀 더 구체화되었다. 도시를 역사·문화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나라 각각의 도시가 그 도시만의 느낌, 특색을 가지고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유적지를 넘어설 수 있는 도시들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네 번의 모임이 소중하고 좋았겠지만, 나는 문화외교라는 막연한 꿈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정한 귀한 시간이었다.

일일

새 박물관장 부임

제 11대 박물관장 김보희 교수의 임기만료로 인문과학대학 미술사학과 오진경 교수가 제 12대 박물관장으로 부임(2010년 8월 1일자)하였다.

전시 · 개막식 소식

2010 · 2011 상설 테마전 (2010. 11. 1 - 2011. 7. 30)

2010 가을 특별기획전 (2010. 11. 1 - 2011. 1. 29)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11월 1일 4개의 전시관에서 상설테마전과 가을 특별기획전을 열었다. 상설전시관에서는 〈조선의 삶을 만나다〉를 주제로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삶의 모습을 계층별 생활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고, 담인묵식미술관에서는 〈조선시대의 나들이〉를 주제로 하여 조선 후기 우리 선조들의 삶을 나들이 차림새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획전시관에서는 우리 문화 속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사랑 받아 온 소나무와 대나무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이들을 대했던 선조들의 여유와 삶의 가치를 고찰하고자 〈松竹 푸른 소리, 맑은 향기〉전을 열었으며, 근·현대미술전시관에서는 〈숲의 향기, 숲의 소리〉를 주제로 자연과 통화되는 예술적 감흥을 느껴보고자 나무와 숲의 모티브를 통해 자연의 초월적 아름다움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학예연구실 권민경

학술행사 소식

전시회와 함께하는 faculty concert

본교 음악대학 교수의 연주와 박물관 전시의 조화로운 만남

● 2010. 11. 18(목) 오후 12시(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로비)

초청강연 Thomas Struth

독일사진의 거장 토마스 스트루스의 작품세계에 관한 강연

● 2010. 11. 18(목) 오후 3시(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 주최-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주관-갤러리현대

2010 가을전시 특별강연회

조선시대 그림과 신문 - 홍신포(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송죽화松竹畫의 세계 - 정진성(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2010. 11. 19(금) 오후 2시(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학예연구실 박계리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소개

2010년 가을과 겨울 이화여대 박물관에서는 상설테마전과 연계된 〈내가 직접 꾸미는 왕실의 삶, 선비의 삶〉과, 가을 특별기획전과 연계된 〈松竹의 소리와 향기〉를 담은 '2011 달력'만들기가 함께 진행된다. 〈내가 직접 꾸미는 왕실의 삶, 선비의 삶〉은 15명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활동지를 통한 전시관람과 간단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활동이 강조된 〈松竹의 소리와 향기〉를 담은 '2011 달력'만들기는 우리 선조들의 여유와 삶의 가치를 담은 '松竹 회화 작품'으로 나만의 탁상달력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모두 조선시대의 역사와 정신, 생활상 모두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어서 전시와 함께 많은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

학예연구실 이정선

교육 '서울역사문화 탐방기 작품전시회' 소식



2010년 을 한 해 진행되었던 〈고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역사문화지도 만들기〉교육프로그램이 '서울역사문화 탐방기 작품전시회'를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고등학생들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직접 체험하고 답사하여 만든 '지도'와, 현대미술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탐방기록을 창의적인 작품으로 새롭게 표현한 '탐방기 작품'들을 박물관에서 전시하였다. 또한 11월 13일(토) 시상식을 진행하여 그동안 성실함과 열정, 창의적인 생각들을 보여준 참여 학생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였다.

학예연구실 이정선

기증 소식

중국 명대, 가정홍난간(1522-1566) 청화백자 접시와 파편 6점



백자청화 연지 · 보상당초문 접시,
중국 명, H.9.1cm

후지카와 유키오(藤川幸夫)가 중국 명대 가정년간(嘉靖年間) 경덕진 민요(興德鎮民窯)에서 출토된 청화백자 접시와 파편 6점을 기증하였다. 내면에 연지문(蓮池文), 외면에는 보상당초문(寶相堂草文)이 그려진 이 파편은 경기도 광주 번천리(樊川里) 출토 중국 청화백자와의 관계성 등 한중문화 비교 자료로서 가치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 기타 김진애(본교 약대 67년도 졸업생), 일제강점기의 민속 자료 15건 55점
최자남(서대문구청 문화강좌 수강생), 일제강점기 복식 자료 3점

학예연구실 박기희

도슨트 소식



2010년 상설테마전과 특별기획전의 관람을 도와 줄 도슨트 32명이 10월 선발되어 교육을 마쳤다. 이번 도슨트들은 본교생, 졸업생 등으로 구

성된 16번째 기수로, 특별기획전이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박물관에서의 사회봉사 경험을 쌓으면서 애교심과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박물관 로비에서 항상 밝은 얼굴로 맞이하는 16기 도슨트들을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다.

학예연구실 박계리

ART SHOP 소식



아트샵에서는 기획 상품 3종을 출시하였다. 그중 첫 번째는 인기 상품이었던 양면가방이 새롭게 출시되었으며, 총 4가지 색상으로 새로운 원단을 사용하여 기존상품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또한 휴대가 간편한 에코백이 양면 배색의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 박물관 소장품 5점의 유물 문양을 응용한 지석예모홀더도 사각형과 원형 2가지 스타일로 선보이고 있다.

아트샵 박호균

소장품 갤러리

조문명 초상 趙文命肖像

조선 영조(英祖)의 최의정(崔維政)을 지낸 조문명(1680-1732)의 병조판서 재직 시의 초상으로, 윤보문(尹寶文)의 현복식 단령에 쌍학흉배와 삼금대(三金帶)를 착용한 전신교의좌상으로 조선시대 후반기 관복 초상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조문명은 1713년 증공문과(增公文和)에 급제한 후 영조1년(1725) 지평(知平)·교리(校理) 등을 역임했으며 영조4년(1728)에는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평정하는 데 세운 공으로 분무공신 2등으로 봉정부원군(奉政院院君)에 봉해졌다. 그 후 병조판서·대제학을 거쳐 최의정에까지 이른 인물이며, 관직에 있는 동안 영조가 내세운 방정학(方定學)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화폭의 우측 상단부에 '영묘초좌의정공증부원군학염조공진 휘문명자숙장 익문증(英廟初左議政贈贈府院君鶴巖趙公諱文命字叔章 諱文命)' 그 아래 '병조판서시작(兵曹判書時作)'이라 하여 이 초상화가 분무공신 작훈 후 병조판서 때에 그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나이 49~50세경의 모습으로 재가 있는 눈썹과 단정한 옷의 대무늬는 그의 강직한 성품을 잘 드러내 준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단정한 필선을 사용하였으며 콧날은 굵고 강하게, 턱 선은 약간 가늘고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얼굴의 윤곽선과 이목구비는 간쑥 선으로 그린 후, 필선을 따라 분홍의 농담을 사용하여 음영을 살렸다. 눈동자는 검은 필선으로 통자를 구획하여 단순하게 묘사하였지만, 깊고 가늘게 표현된 눈매와 끌이 올라간 눈썹은 때때우면서도 옅은 관료의 품성을 짐작케 한다. 눈아는 비교적 높고, 가늘고 날렵한 형태의 양각을 지닌 시모는 무릎의 검정색으로 채우고 세부 선들은 유광선으로 그렸으며, 시모의 모퉁이에 있어 앞뒤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짙은 흑색으로 칠하였다. 관복의 옷 주름은 곡선과 직선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주름진 곳은 어둡게 하여 음영을 분명하게 주었으며, 어깨선은 둥글게 표현하는 등 신체외의 자연스러운 관계성을 보여준다. 관복의 구름문양은 의복의 강한 필선과 내부의 가는 필선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율동적인 변화를 보인다. 단령 끝에는 청색 인감이 보이도록 하였으며 단령 옆트임 사이로 속에 입은 옥색 화문 포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려진 목걸이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 족좌대에 정갈하게 표현된 두 발, 기품 있는 자세 등은 경건하고 감직한 관료 초상의 전형美를 느끼게 한다. 교의는 검은색 칠기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한 줄씩 섬세하게 묘사된 표범가죽이 깔려 있으며 관복 하단에는 표범 머리가 양발 사이로 보이고 표범의 양쪽 다리는 족좌대 바깥쪽으로 감겨져 표현되었다. 교의의 족좌대는 비좁은 작고 장식적인 요소가 정제되어 전체적으로는 인물에 더욱 시선이 끌리는 명쾌한 초상화로 이 시기의 드문 전신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상설전시관에서 1년간 전시될 이 초상은 품계에 따라 지진, 색깔, 문양을 달리 했던 관료들의 의복과 장신구와 함께 진열되어 엄격한 질서와 규율 속에 조화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안목을 엿 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학예연구실 권민경

독자의견

박물관 문화에서 독자의견을 받습니다. 투고글 원하시거나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 권민경 ed03@ewha.ac.kr
tel. 02-3277-3152, fax. 02-3277-3153



조문명 초상 趙文命肖像 | 소장품 갤러리

조선 18세기, 종이에 채색, 170X105,5cm
 Portrait of Cho Moonmyeong
 Joseon 18th century, Colors on Paper

